

■인문사회계열 수시 전형요소 반영비율

Table with columns: 학년, 구분, 대학명, 반영비율. Lists various universities and their admission criteria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ction.

Table with columns: 구분, 대학명, 반영비율. Lists various universities and their admission criteria for the natural sciences section.

■자연계열 수시 전형요소 반영비율

Table with columns: 학년, 구분, 대학명, 반영비율. Lists various universities and their admission criteria for the natural sciences section.

2014 대입수시모집 9월4일 시작...정원 66.4% 뽑아

광주·전남 19개 대학 1만8524명 선발 전남대 특별전형...조선대 학생부 100%

2014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의 66.4%를 뽑는 수시모집은 오는 9월4일 시작된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25만 1608명으로 지난해보다 8385명(2% 포인트)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대학 입학 정원의 66.4%, 전년 대비 8385명 증가=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총 모집정원 37만 8971명의 66.4%인 25만1608명으로 지난해 24만3223명(64.4%)보다 8385명 늘었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지난해보다 1곳 많은 126개 대학이 4만7273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수시모집의 각종 유형을

Table with columns: 구분, 시기, 내용. Lists key dates for the 2014 admission process, including application periods and exam dates.

▲학생부 ▲입학사정관(학생부 중심) ▲논술 ▲실기·적성(특기)·면접 등 크게 4가지 핵심전형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해 부제를 달아 안내한다.

실기·적성·면접 전형은 실기중심, 적성(특기)중심, 면접중심으로 세분화돼 수시모집 유형은 총 6가지 부제를 달아 표시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시모집에서 여러 곳에 합격한 지원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 1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 1차는 9월4~13일 원서를 받고, 수시 2차는 11월11~15일 원서를

받는다. 전형기간은 9월4~12월2일 까지이며, 합격자는 12월7일까지 발표된다.

최초 등록기간은 12월9~11일 사흘간이며, 12월12~16일 미등록 총원 합격자가 통보된다.

◇광주·전남 지난해보다 400명 더 선발=광주·전남에서는 19개 대학이 1만8524명을 수시로 뽑는다. 광주가톨릭대는 수시 모집을 하지 않는다.

대학별로 보면 국립대의 경우 목포대 1444명, 목포해양대 407명, 순천대 1265명, 전남대 2770명(광주 2184명, 여수 586명), 광주교대 196명, 광주과학기술원 150명을 수시에서 뽑는다.

사립대는 광신대 103명, 광주대 1651명, 광주여대 975명, 남부대 767명, 동신대 1517명, 목포가톨릭대 109명, 송원대 764명, 영산신학대 35명, 조선대 3339명, 초당대 786명, 한려대 410명, 호남대 1712명, 호남신학대 124명 등이다.

이 중 전남대·광주교대·목포해양대·광신대·영산신학대 등 5곳은 수시 모집에서 특별전형만 실시한다.

학교생활부 100% 반영하는 대학(일반·인문사회계열)은 국립대는 목포대·순천대, 사립은 목포가톨릭대·조선대·한려대가 실시한다. 80%

Weather forecast section titled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how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data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Busan, and Jeonju.

이상은 광주대·남부대 2곳이, 60% 이상은 광주여대·동신대·송원대·초당대·호남대 등 5곳, 50% 이상은 호남신학대가 반영한다.

한편, 교육청 주최 수시모집 대입 설명회는 광주에는 오는 19~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남은 22일 목포권, 23일 여수권, 24일 순천권에서 개최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군기 바짝 든 예비군 훈련

상의단추 풀거나 모자 비틀어 쓰고 어슬렁 거림 사라져 지각생은 교육도 못받아... 모든 훈련 교관이 직접 인솔

예비군 훈련이 달라졌다. 바뀌어도 확 바뀌었다. 행이 하늘로 향하게 대충 쓴 모자에 상의 단추 2~3개를 풀고 어슬렁 어슬렁 훈련장을 돌아다니는 예비군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31보병사단(사단장 박병기)이 지난 5월부터 예비군 훈련 강화를 내걸고 '조기 퇴소제', '담임교관제' 등을 도입한 뒤부터 나타났던 예비군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우선, 집결 시간인 오전 9시를 넘긴 뒤 천천히 들어오는 예비군은 아예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11일 오전 9시부터 광주 삼각산 예비군 훈련장을 찾은 전남대 예비군 대원들은 총기 및 장비 지급시간이 단축되면서 총기를 받기 위해 상당 시간을 기다리는 불편함도 겪지 않았다.

훈련 과제와 평가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예비군을 25명의 교관이 나누어 인솔하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집결지 상황 파악 →이동 및 대형 유지→구급법→화생방 등 과정을 사실상 1대 1로 교육받는 '순환형 모형 훈련'을 수행한다.

예전 '총만 잘 쏘면' 훈련을 열외하고 귀가 조치 됐던 방식도 사격, 슈류탄, 구급법, 화생방 등 4개 과목 중 3개 이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가능하게 바뀌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11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남대 직장인대 소속 한 대학생 예비군이 전방을 향해 힘껏 슈류탄을 던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2013 SUMMER 여름방학' (2013 Summer Vacation) featuring '청소년 해외영어캠프' (Young Men's Overseas English Camp). The ad lists activities like 24-hour English life, level-based classes, cultural experiences, safety management systems, math practice, and a matching program. It also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wo camps: Philippines and New Zealand.